

초·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향분석*

윤 영 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며, 기계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미래를 향하여 밝은 희망을 가지고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학교생활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특히 따돌림의 문제는 따돌리는 아동, 따돌림 당하는 아동 모두의 인격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다(Parker & Asher, 1993; Kim, 1999). 특히 청소년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또래관계를 통해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기술 등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시기(Helsen, Vollebergh, & Mees, 2000)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피해 당사자는 우울증,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 자신에 대한 비난,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게 되며(Bernstein & Watson, 1997)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고, 심각한 무력감,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및 학교부적응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Astor, Pitner, Meyer, & Vargas, 2000; Kim, Koh, & Leventhal, 2005; Lee, Kweon, & Kim, 2007).

이렇듯 일상생활 속에 따돌림에 대한 문제에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음이 알려져, 이의 관심 증가로 따돌림 현상은 '떼지어 몰려듬(mobbing)', '또래폭력(bullying)', '사회적 배타(social exclusion)', '동료학대(peer abuse)', '이지메'라는 용어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따', '이지메', '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지메'란 용어가 소개되면서부터이다. '이지메'란 말은 우리말로 '집단괴롭힘'이며, 이러한 괴롭힘의 결과는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생겨난 용어가 '왕따'(크게, 심하게 따돌림), '은따(은근히 따돌림)', '전따(전교 따돌림)' 등이다. 이지메는 집단 속에서 힘없고 약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 놓고 괴롭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따돌림 현상은 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잘난 척하고', '믿을 수 없고', '이기적이거나 남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Khu, 1997; Lee & Kwak, 2000), 이 용어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또한 '집단괴롭힘'은 괴롭힘이라는 공격행위가 부각되어, 다수의 무시와 소외와 같은 심리적인 따돌림 현상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교육부가 1999년 발표에서 '왕따'라는 용어대신 집단따돌림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으로 하고자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이러한 집단따돌림의 형태를 크게

* 본 연구는 2006년 서울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서울대학교 간호과(교신전자 E-mail: profen@seoil.ac.kr)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공격 및 관계적 공격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신체적 공격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 걷어차기, 때리기 등을 포함하며, 언어적 공격은 욕설 퍼붓기, 모욕 주기, 별명 부르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적 공격은 타인의 자아존중감 및 친밀 관계를 손상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를 말하며, 경멸하기, 헛소문 퍼뜨리기, 친구관계 조정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와는 다르게 Crick과 Grotpeter(1995)는 집단따돌림을 외형적 유형과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그 동안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외형적 유형의 집단따돌림만을 연구대상으로 두어 왔던 점을 지적하고 집단따돌림의 또 다른 하위유형인 관계적 유형의 집단따돌림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외하였다. 관계적 유형의 집단따돌림이란 대인관계를 조정하거나 대인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해를 입히는 것으로, 또래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생일파티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소외시키거나 또래집단 내에서 악위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Suh, 2002). 이와 같이 집단따돌림의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최근 일만은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행처럼 번져나가서 특정 연령층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학교사회에서의 집단따돌림이 사회적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구별이 안갈 정도로 일상화되어 또래를 따돌리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Khu, 1997; Jang, 2003).

청소년 집단따돌림에 관한 국내 연구들의 초기 연구는 대부분 상담사례이거나(Khu, 1997) 실태조사 수준(Kim, 1999; Lee & Kwak, 1999)에 그치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집단따돌림을 다양한 심리학적 관점으로 조명한 연구(Choi, 2000; Kang & Lee, 2003; Lee & Yim, 2002; Park, 2005)들이 이루어졌고,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연구 또한 현장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중 일부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집단괴롭힘, 왕따, 이지메와 같은 용어가 혼용되어 집단따돌림에 대한 개념정리의 노력이 부족

한 상태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적, 언어적인 유형 이외에 집단따돌림의 또 다른 하위유형인 관계적 유형의 집단따돌림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집단따돌림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여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접근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가해, 피해 특성과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1) 초·중·고등학생별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와 집단따돌림 하위 유형별 정도를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3) 초·중·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의 이유 및 대응행동, 피해학생의 특성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집단따돌림 정도의 차이와 가해, 피해 특성 및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및 중학교와 고등학생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1개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 2개의 남녀 고등학교의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해당학교 담임선생님들께 동의를 구한 후 대상자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한 후 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초등학교 166

명, 중학생 336명, 고등학생 409명, 총 911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Choi(2000)가 제작한 척도로서, 3가지 유형별 즉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으로 나눈 것이다. 유형별 5문항씩 '가해 항목' 15문항, '피해 항목' 15문항을 선정하여 최근 한 학기간의 기간을 두고 척도를 '전혀 없다', '한두 번 있었다', '한 달에 2-3회 있었다', '1주일에 1회 있었다', '1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로 빈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 피해를 경험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외형은 은밀하고 은근하게 무리를 지어 한 사람으로 소외시키는 유형이고, 언어형은 놀림, 조롱, 또는 욕을 하거나 헐뜯는 유형으로서 주로 언어적으로 고통을 주며 따돌리는 유형이며, 신체형은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몸을 이용한 심한 장난, 강탈이나 구타가 위주가 되는 따돌림 유형이다. Choi(2000)의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가해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0$ 이고 집단 따돌림 피해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이고 집단 따돌림 피해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로 나타났다.

2)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특성과 실태에 관한 문항 이는 Lee와 Kwak(2000)의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와 특성에 사용한 도구 중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집단따돌림의 피해 특성 및 실태에 관한 문항은 무엇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따돌림을 당하고 난 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물어 보았으며, 집단따돌림의 가해 특성 및 실태에 관한 문항은 집단따돌림을 할 때 혼자 또는 몇 명이 같이 하는지, 무엇 때문에 따돌리는지,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은 주로 어떤 행동 특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각 학교의 보건교사 및 일반교사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각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한 960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911부(94.9%)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초·중·고등학생별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와 집단따돌림 하위 유형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초·중·고등학생별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특성과 실태 분포의 비교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초·중·고등학생별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와 집단따돌림 하위 유형별 정도

초·중·고등학생별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에서는 중학생(M=1.77, SD=0.51), 고등학생(M=1.68, SD=0.56), 초등학생(M=1.64, SD=0.54) 순으로 집단 따돌림 가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에서는 중학생(M=1.55, SD=0.61), 초등학생(M=1.36, SD=0.49), 고등학생(M=1.31, SD=0.46) 순으로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초·중·고등학생별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하위 유형별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집단따돌림 가해 하위 유형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소외형(M=1.92, SD=0.7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언어형(M=2.04, SD=0.79), 고등학생의 경우 소외형(M=1.94, SD=0.7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피해 하위 유형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언어형(=1.52, SD=0.6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

<Table 1> Tendency to bully and to be a bully victim by education grade

	Tendency to bully				Tendency to be a bully victim			
	Alienation type	Language type	Physical damage type	Total	Alienation type	Language type	Physical damage type	Tot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Elementary school	1.92(0.72)	1.76(0.73)	1.25(0.49)	1.64(0.54)	1.36(0.59)	1.52(0.65)	1.21(0.50)	1.36(0.49)
Middle school	1.87(0.57)	2.04(0.79)	1.40(0.50)	1.77(0.51)	1.51(0.84)	1.78(0.78)	1.36(0.53)	1.55(0.61)
High school	1.94(0.70)	1.85(0.82)	1.24(0.49)	1.68(0.56)	1.29(0.51)	1.48(0.71)	1.15(0.42)	1.31(0.46)

고등학생도 모두 언어형(M=1.78, SD=0.78; M=1.48, SD=0.7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가해 F=

3.93, $p < .05$, 피해 $F=19.87$, $p < .001$)으로, 그리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가해 $t=8.87$, $p < .01$, 피해 $t=9.22$, $p < .01$)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F=5.34$, $p < .01$)과 형제순위($F=4.78$, $p < .001$)는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취도($F=2.45$, $p < .05$)는 집단따돌림의 가해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of tendency to bully and to be a bully victim b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Tendency to bully		Tendency to be a bully victim	
		Mean(SD)	t or F	Mean(SD)	t or F
Education grade	Elementary school	1.64(0.54)	3.93*	1.36(0.49)	19.87***
	Middle school	1.77(0.50)		1.55(0.61)	
	High school	1.68(0.56)		1.31(0.46)	
Gender	Male	1.76(0.58)	8.87**	1.46(0.57)	9.22**
	Female	1.65(0.49)		1.35(0.50)	
Economic status(subjective)	High	1.73(0.71)	0.15	1.39(0.59)	5.34**
	Moderate	1.70(0.52)		1.39(0.49)	
	Low	1.71(0.44)		1.60(0.80)	
Parents composition	Parent all	1.71(0.55)	0.23	1.40(0.53)	1.52
	Father only	1.74(0.40)		1.60(0.70)	
	Mother only	1.69(0.34)		1.58(0.54)	
	Parent absent	1.40(0.37)		1.10(0.14)	
Living with parents	With parents	1.71(0.55)	0.37	1.40(0.54)	1.93
	Without parents	1.62(0.37)		1.27(0.43)	
	With father	1.63(0.40)		1.55(0.38)	
	With mother	1.74(0.37)		1.54(0.55)	
Sibling order	First	1.67(0.54)	1.61	1.36(0.48)	4.78***
	Middle	1.70(0.43)		1.42(0.47)	
	Last	1.72(0.54)		1.41(0.54)	
	Only	1.82(0.65)		1.56(0.82)	
	Other	1.90(0.40)		1.90(0.65)	
Academic performance	Very poor	1.71(0.71)	2.45*	1.42(0.68)	1.59
	Below middle	1.77(0.49)		1.49(0.60)	
	Middle	1.71(0.53)		1.38(0.51)	
	Above middle	1.64(0.51)		1.37(0.50)	
	Very well	1.80(0.60)		1.40(0.48)	

* $p < .05$ ** $p < .01$ *** $p < .001$

3. 초·중·고등학생별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의 이유 및 대응행동, 피해학생의 특성

집단따돌림 피해의 이유 즉 무엇 때문에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초등학생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5.4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잘난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3.66%) 순이었으며,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는 모두 '반의 못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9.23%; 7.3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친구들의 분위기를 맞추지 못해서'(8.33%;

6.37%)가 다음 순이었다(Table 3).

집단따돌림의 피해 후 대응행동 즉 따돌림을 당하고 난 뒤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관해 초등학생의 경우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함'(10.6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무하고도 말을 안함'(3.14%)으로 응답하였으며,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는 모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함'(9.82%; 10.32%) 다음으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음'(5.65%; 5.64%)으로 응답하였다(Table 4).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난 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

<Table 3> Reasons to be a bully victim (double check)

Ite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N	%	N	%	N	%	N	%
못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	2	1.22	31	9.23	30	7.35	63	6.94
친구들의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	5	3.07	28	8.33	26	6.37	59	6.50
잘난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	6	3.66	21	6.25	22	5.40	49	5.40
따돌림 당하는 이유 모르겠다	9	5.49	17	5.06	21	5.15	47	5.18
얼굴이나 외모가 이상해서	4	2.44	17	5.06	12	2.94	33	3.63
친구들을 무시하기 때문	1	0.61	16	4.76	14	3.43	31	3.42
얼굴이나 외모가 잘생겨서	1	0.61	2	0.60	10	2.45	13	1.43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	1	0.61	0	0	8	1.96	9	0.99
모범생이기 때문	0	0	0	0	9	2.21	9	0.99

<Table 4> Behaviors and coping methods after be a bully victim (double check)

Behaviors ite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N	%	N	%	N	%	N	%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함	17	10.69	33	9.82	42	10.32	92	10.20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음	0	0	19	5.65	23	5.64	42	4.65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음	5	3.14	16	4.76	18	4.41	39	4.32
말로 대항 함	3	1.89	14	4.17	10	2.45	27	2.99
따돌림 장소에 가지 않음	3	1.89	10	2.98	8	1.96	21	2.33
고개를 숙이고 다님	1	0.63	8	2.38	10	2.45	19	2.10
도시락을 혼자 먹음	0	0	2	0.60	9	2.21	11	1.22
운동장을 혼자 배회 함	0	0	2	0.60	7	1.72	9	1.00
학교에 가지 않음	1	0.63	3	0.89	4	0.98	8	0.89
Coping methods item	N	%	N	%	N	%	N	%
혼자서 묵묵히 참음	7	4.52	26	7.74	30	7.41	63	7.03
따돌리는 아이를 무시함	4	2.56	22	6.55	23	5.69	49	5.47
부모님께 이야기 함	10	6.41	8	2.38	16	3.95	34	3.79
따돌리는 아이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함	4	2.56	14	4.17	5	1.23	23	2.57
같이 대항함	0	0	10	2.98	8	1.98	18	2.01
따돌림 당하지 않기위해 집단에 들어감	2	1.29	6	1.79	8	1.98	16	1.79
선생님께 상의 함	4	2.56	8	2.38	4	0.99	16	1.78
경찰서에 신고 함	0	0	8	2.38	4	0.99	12	1.34
다른 학교로 전학 감	0	0	4	1.19	5	1.23	9	1.00
휴학을 함	0	0	0	0	5	1.23	5	0.56
다른 아이들을 따돌림	0	0	4	1.19	1	0.25	5	0.56
상담실에 도움 요청 함	1	0.64	0	0	0	0	1	0.11

고 노력하였는지에 관해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님께 이야기 함'(6.41%) 다음으로 '혼자서 참음'(4.52%)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는 '혼자서 참음'(7.74%; 7.41%) 다음으로 '따돌리는 아이를 무시함'(6.55%; 5.69%)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4).

집단따돌림 가해시 보통 혼자 하는지 또는 몇 명이 같이 하는지에 관해 초등학생은 '3-8명의 다른 학생과 함께 함'(12.8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1-2명의 학생과 함께 함'(10.37%)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도 '3-8명의 다른 학생과 함께 함'(10.48%; 16.34%) 다음으로 '1-2명의 학생과 함께 함'(10.18%; 6.68%)으로 나타났다(Table 5).

집단따돌림의 가해 이유 즉 무엇 때문에 친구를 따돌리는지에 관해 초등학생의 경우는 '잘난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24.7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친구들을 무시하기 때문에'(13.86%)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잘난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14.29%) 다음으로 '얼굴이나 외모가 이상하게 생겨서'(6.55%)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잘난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21.78%) 다음으로 '친구들을 무시하기 때문에'(11.39%)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6).

집단따돌림의 피해 아동의 특성에 관해 초등학생의 경우는 '잘난 척하고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아이(60.78%)', '이 친구 저 친구에게 귀찮게 구는 아이(52.94%)', '공주병 또는 왕자병이 있는 아이(48.37%)', '내숭 떠는 아이(48.3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잘난 척하고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아이(56.29%)', '어병병해 보이는 아이(54.49%)',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아이(44.01%)', '힘이 약해 보이는 아이(4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잘난 척하고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아이(64.99%)',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아이(8.29%)', '이 친구 저 친구에게 귀찮게 구는 아이(37.53%)', '아침하는 아이(36.7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7).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집단따돌림의 가해 및 피해 정

<Table 5> Numbers of bullying children

Ite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N	%	N	%	N	%	N	%
보통 혼자	6	3.66	18	5.39	10	2.48	34	3.77
1-2명의 다른 학생과 함께	17	10.37	34	10.18	27	6.68	78	8.65
3-8명의 다른 학생과 함께	21	12.80	35	10.48	66	16.34	122	13.53
8명 이상의 다른 학생과 함께	13	7.93	8	2.40	25	6.19	46	5.10

<Table 6> Reasons to bully (double check)

Ite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N	%	N	%	N	%	N	%
잘난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	41	24.70	48	14.29	88	21.78	177	19.54
친구들을 무시하기 때문	23	13.86	12	3.57	46	11.39	81	8.93
얼굴이나 외모가 이상해서	15	9.04	22	6.55	36	8.89	73	8.05
친구들의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	18	10.84	18	5.36	36	8.89	72	7.94
따돌림 하는 이유 모르겠다	5	3.01	18	5.36	10	2.47	33	3.64
못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	1	0.61	7	2.08	15	3.70	23	2.54
너무 부자티를 내서	2	1.20	2	0.60	13	3.21	17	1.87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	6	3.61	4	1.19	4	0.99	14	1.54
얼굴이나 외모가 잘생겨서	4	2.41	4	1.19	5	1.23	13	1.43
가난해 수준이 안맞아서	4	2.41	2	0.60	4	0.99	10	1.10
모범생이기 때문	1	0.61	4	1.19	4	0.99	9	0.99

〈Table 7〉 Children's characteristics to be bully victim (double check)

Item	Elementary school (N=166)		Middle school (N=336)		High school (N=409)		Total (N=911)	
	N	%	N	%	N	%	N	%
잘난 척하고 다른 친구 무시하는 아이	93	60.78	188	56.29	258	64.99	539	60.97
선생님께 고자질 하는 아이	70	45.75	147	44.01	152	38.29	369	41.74
귀찮게 구는 아이	81	52.94	120	35.93	149	37.53	350	39.59
어빙빙해 보이는 아이	54	35.29	182	54.49	111	27.96	347	39.25
얼굴, 외모가 놀림받게 생긴 아이	66	43.14	133	39.82	138	34.76	337	38.12
공주병, 왕자병 있는 아이	74	48.37	89	26.65	109	27.46	272	30.77
힘이 약해 보이는 아이	39	25.66	146	43.71	83	20.91	268	30.35
내숭 떠는 아이	74	48.37	63	18.86	120	30.23	257	29.07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	59	38.56	97	29.04	83	20.91	239	27.04
아침하는 아이	37	24.18	42	12.61	146	36.78	225	25.48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는 아이	27	17.65	75	22.46	50	12.59	152	17.19
약삭 빠른 아이	34	22.22	34	10.18	82	20.71	150	16.99
순진해 보이는 아이	25	16.34	66	19.76	35	8.82	126	14.25
대화시 엉뚱한 대답을 하는 아이	28	18.30	40	11.98	57	14.36	125	14.14
수업시 엉뚱한 대답을 하는 아이	20	13.07	19	5.69	50	12.59	89	10.07
선생님 말씀 곧이곧대로 듣는 아이	18	11.76	27	8.08	32	8.06	77	8.71
선생님 사랑 독차지하는 아이	30	19.61	16	4.70	24	6.05	70	7.92

도 모두가 중학생에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따돌림이 초등학교 때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학교에서 정점을 이루고 고등학교에서 감소하게 된다 (Banks, 1999)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집단따돌림의 발생 원인이 사회문화적 요인, 교육적 요인, 가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하고 복잡하여 (Park, 2000) 한마디로 논의할 수는 없으나 중학교 시기에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가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집단따돌림에 한번 노출된 개인이 강한 적개심과 피해의식, 반항심이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자신이 입을 피해를 타인에 대한 가해로 보상받거나 혹은 또래폭력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친구에 대한 가해에 가담하기도 하기 때문에 (Lee, 1999) 가해 정도, 피해 정도 모두 중학생 시기에 같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 하위 유형별 정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언어형, 여학생의 경우에는 소외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하

위 유형별 정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언어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집단따돌림의 발생률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Olweus, 1994). 그러나 유의미하게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어 (Lee, 1999; Choi, 2000) 성차에 따른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는다. 친구의 따돌림 방법 중 은밀하게 소외시키는 방법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자주 사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학생이 신체적 집단괴롭힘을 선호하는 것은 남학생의 신체적 힘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에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더 복잡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간접적 집단 따돌림은 남학생에게서는 덜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여학생은 사회적 고립이나 소문을 내는 것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ivers & Smith, 1994). 즉 소외형은 수동성향이 강한 개인과 여학생이 주로 사용하며, 언어형과 신체형은 행동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개인과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다 (Lee, 2005). 반면 소외형은 잘난 척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유형에 대해 지배와 인정에 대한 욕구, 자기보호의식이 강한 유형이 가해할 가능성이 크다 (Choi,

2000). 언어형과 신체형은 충동적인 폭력에 더 가까운 유형이므로 기존 학교폭력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초등학생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는 반의 못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친구들의 분위기를 맞추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따돌림 당하는 이유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따돌림에 대한 통찰이나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이유로 잘난 척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Lee와 Kwak(200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난 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해 초등학생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부모님께 이야기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거나 혼자서 참는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렇듯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등(Lee & Kwak, 2000; Whitney & Smith, 1993)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상황을 회피하는 반응을 주되게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친구를 따돌릴 때 3-8명이 함께 따돌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 하위 유형 중 소외형이 가장 높게 나온 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소외형은 다수에 의해 행해지며 발생빈도가 높고, 언어형과 신체형은 한 명 또는 소수에 의해 행해진다는 연구결과(Lee, 2005)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따돌림 가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잘난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든가 친구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집단따돌림 가해의 경우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를 더 문제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Lee와 Kwak(2000) 및 Jang(2003)의

결과에서도 지나치게 잘난 척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따돌림 현상이 힘없고 약한 특정 대상만을 하지 않고 어떤 대상이라고 대인관계 속에서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무리지어 집단으로 따돌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아직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일탈적 행위로서 그 심각성이 갈수록 비행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정문제 청소년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 모두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Jang, 2003). 또한 가치관의 미확립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못 느끼고, 집단화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가해학생 혹은 피해학생 주변의 학생들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집단따돌림은 특정문제 청소년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 모두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각각의 집단따돌림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여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접근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와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특성과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성별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별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를 알아본 결과, 중학생이 가해 및 피해 정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하위 유형별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집단따돌림 가해 하위 유형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소외형, 중학생의 경우는 언어형, 고등학생의 경우도 소외

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피해 하위 유형에서는 언어형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피해 특성 및 실태 정도는 먼저 무엇 때문에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초등학생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은 '반의 못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다. 따돌림을 당하고 난 뒤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함'이 가장 많았다. 따돌림을 당하고 난 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님께 이야기 함'이, 중학생, 고등학생은 모두 '혼자서 참음'이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의 가해 특성 및 실태 정도는 먼저 집단따돌림을 할 때 혼자 하는지 또는 몇 명이 같이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3-8명의 다른 학생과 함께 함'이 가장 많았다. 무엇 때문에 친구를 따돌리는지에 대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잘난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은 주로 어떤 행동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잘난 척하고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아이'가 가장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의 특성 및 실태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집단따돌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집단따돌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연구대상을 더 확대하여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정도와 특성 및 실태 파악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2.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 집단따돌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stor, R. A., Pitner, R. O., Meyer, H. A., & Vargas, L. A. (2000). The most violent event at school: A ripple in the pond. *Child Schools, 22*(4), 199-216.
- Banks, R. (1999). *Bullying in schools Moravia*. NY: Chronic guidance Publications.
- Berstein, I.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 Interpers Violence, 12*(4), 483-498.
- Choi, E. S. (2000). *A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Seoul.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ng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 66*, 710-722.
- Helsen, M., Vollebergh, W., & Mee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29*(3), 319-335.
- Jang, M. H.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social support and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 Kang, U. H., Lee, E. H., & Yim, E. J. (2002). The bullying and psychological traits. *Korean J Couns Psychother, 14*(2), 445-460.
- Khu, B. Y. (1997). *Bullying of youth and counseling. research report of youth counseling*. 29.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Kim, O. Y. (1999). The study about bullying of adolescence. *J Wonkwang Univ, 23*, 85-124.
- Kim, Y. S., Koh, Y. J., & Leventhal, B. (2005). School bullying and suicidal risk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Pediatrics, 115*(2), 357-363.

- Lee, C. J., & Kwak, K. J. (2000). *Bullying at schools*. Seoul: Jibmundang.
- Lee, C. S., Kweon, Y. R., & Kim, S. J. (2007).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6(1), 32-40.
- Lee, J. N. (1999). *Study on the propensity of children's self 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pending on the persecution suffering pattern of group bully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ch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 Lee, J. W. (1999).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style on peer victim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 H. (2005). *A component analysis on the causes of three types of bully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 application of social relational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Daegu.
- Lee, S. G. (1999). *Influencing factors on bullying at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Olew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 Chil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 M. Y. (2000).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bullying behavior in prim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S. H. (2005). *A study on offenders and victims of the group blackballing and retaliatory psychology-focused on types and gender differences of the group blackball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 Psychol*, 29(4), 611-621.
- Rivers, L., & Smith, P. K. (1994). Types of bullying behavior and their correlate. *Aggress Behav*, 20, 359-368.
- Suh, E. Y. (2002).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characters with the subtypes of victim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Whitney, L., & Smith, P. K. (1993). A survey of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 Res*, 35(1), 3-25.

Analysis on Bullying Tendencie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Yoon, Young Mi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Purpose: To identify bullying tendencie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ethod:**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911 participat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thre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at had been modified by the investigator.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Win 1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Result:** The level of bullyi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were higher than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ubtypes of bullying, language type was higher than alienation and physical damage typ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methods to resolve a bullying situation are for the victim to 'speak to parent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t 'bear alone'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answer to the question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been the victim of bullying' was 3-8 friends'. The reason for being a bully victim was 'because they pretend to be a superior man'. **Conclusion:** Although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is area, further study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needs to be conducted. Furthermore, a variety of programs for preventing bullying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Bullyi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student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Seoil college